

업계동향

■ 강 습 회

1. 한국가금협회 경북지부

지난 1월 26일 한국가금협회 경북지부에서는 지부 주최로 춘계 대강습회 및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영남대학교의 강당에서 열렸던 강습회 및 전시회장에서는 약 700여명의 청중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는데 특히 아담하게 차려진 전시회장에는 각 부화장에서 출품한 여러 종류의 품종과 계약회사에서 출품한 각종 약품들이, 그리고 각 배합사료회사에서 출품한 각 사료들은 여러 양계가들이 우수한 약품·사료·종계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하여 주었다. 이날 강습회는 이학철 경북지부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어 오봉국회장의 격려사와 경북도지사의 격려사에 이어 강습회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번 강습회를 마련한 것은 발전하는 경북지방의 양계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한국가금협회 경북지부장 이학철 박사님과 김동일씨, 나채면씨, 그리고 한일케이지사의 손동목씨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실이었으며 특히 경상북도, 영남대학 축산대학·대구축산협동조합의 후원이 큰 힘이 되었다. 이번 강습회의 강사와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 ★ 오봉국(서울농대 교수) 70년도의 양계전망과 품종 개량에 대하여
- ★ 한인규(서울농대 교수) 가금의 영양에 대하여
- ★ 오세정(건국대 교수) 양계경영의 개선점에 대하여
- ★ 최창해(서울농업대 교수) 70년도 채탄 양계의 전망
- ★ 이학철(영남대 축산대학장) 닭의 호흡기 질환의 예방과 치료

【전시회장에 출품된 제품】

1. 부 화 장

대구축협 ; 바브록 B 300, B-390, 필취

대현농장 : 와렌 배무라 코니쉬

대구부화장 : 하바드 코멧트

수성부화장 : 웰프라인 937

신성부화장 : 뉴데무라 WL-988 횡샤 105 미트닉신

신기부화장 : 하바드 코멧트 가바

철성부화장 : 하이라인 934D 미제드

한일부화장 : 바브록 B-300 B-390

(2) 제약회사

극동제약 : 비타토닉 테트라신 등

대한신약 : 에그믹스 테라마이신 등

유한양행 : 오레오마이신 올믹스 등

태평케미칼 : 도이후랄 드파졸 AD₃E 등

한국고킹 : 판토닉 팔라치 등

김수의과약품 : 가축약 일체

제일가축병원 : 가축약 일체

(3) 사료회사

대구축협 : 산란A 산란1호 유추 등

인산사료 : 산란특 부로일러 등

홍성사료 : 산란특 부로일러 등

유양사료 : 산란A 유추 등

대한사료 : 산란계 부로일러 등

한일사료 : 산란계 부로일러 등

(4) 양계기구

벌어케이지 : 성계용 육추용 등

한일케이지 : 성계5수용 육추용 등

대동케이지 : 성계용 노천용 등

계립케이지 : 성계용 육추용 등

2. 제일산업주식회사

지난 2월 27일 제일산업 대전지점 회의실에서는 서울대학의 오봉국·한인규교수님을 모시고 제일산업의 간부진 및 거래처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날의 연제 및 토의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 (1) 70년대의 사료 전망과 사료공업 발전의 방향

(2) 과학 사료로 펠리트사료의 특성과 유회성

3. 한국가금협회 3월 강습회

한국가금협회에서는 3월의 월례강습회를 지난 3월 7일(토) 신촌에 소재한 서울축협 회의실에서 가졌는데 특히 3월부터 많은 양계인들의 요청으로 기초반과 고등반으로 나누어 강습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강습회의 강사와 연제는 아래와 같았다.

- (1) 기초반 : 기초양계강좌(육추편)—오세정
- (2) 고등반 : 육용계능력검정시험—오봉국
- (3) 양계부기에 대하여(원장기입)—이질현

■ 제일산업 펠리트사료 생산

사료의 물리적 형태를 변형시켜 사료의 효율을 높이려는 수단으로 외국에서는 펠리트사료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근래에 와서 우리 나라에서도 이 분야에 대하여 진지한 연구와 함께 생산을 시도 중인데 제일산업에서는 금년 6월 중으로 펠리트사료 공장을 완성하여 생산하게 되리라 한다.

■ 장학생 선발

사료 첨가제회사인 한국비타민헤드쿼터주식회사가 매년 선발하는 축산장학금이 이번 학기에도 전국 9개 농과대학 10여명에게 지급되었다. 1966년에 처음 시작된 본 V-HI장학금은 매년 그 혜택을 받는 장학생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근래에 와서는 각 사료회사에서도 많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어 축산학도들에게 밝은 장래를 약속하고 있다.

■ 대동사료

천호동에 자리잡고 있는 대동사료는 새로이 일산 100톤 규모의 배합사료 생산 시설을 완료하고 지난 3월 9일 그 준공식을 가졌다.

■ 배합사료 가격 인상

배합사료의 가격은 계속 보합상태(保合狀態)

를 유지하여 왔으나 도입사료(옥수수·어분·대두박)의 가격 인상으로 부득이 배합사료의 가격도 전반적으로 인상되었다.

도입사료 중에서 옥수수는 65달러선이던 것이 75달러선으로 국제가격이 인상되었으며 결제조건도 외상 수입에서 현금결제 수입으로 그 지불조건이 불리하여진 반면 정부의 자금 지원의 미비와 은행대출의 전반적인 통제는 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자금 고갈로 인한 금리의 압박을 받게 되어 사료가격의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일반 양계업자들은 이와 같은 사료가격의 인상을 계기로 배합사료의 보다 나은 품질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 한국카아길 사료 생산

작년말 준공하여 사료 생산시험 기간을 거쳐 지난 3월 17일부터 시판하게 되는 한국카아길의 완전배합사료는 작은병아리용·중병아리용·큰병아리용·종계용·산란18호·산란A호·부로일러 작은 병아리용·부로일러 육성용 등 8종류를 시판하게 되는데 포장은 전부 25kg이며 능력은 일산 100톤 정도라 한다.

그런데 사료 판매는 대리점 총판제도로 현재 지역별 대리점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

① 서울·경기 (A) : 서대문·신촌·수색·과주 일원 대표 정운하(제일축산기업주식회사 Tel. 33-8844)

② 서울·경기 (B) : 동두천·의정부·수유리 청량리·가평·양평·천호동 일원 대표 이국진(대지사료상사 Tel. 53-5473)

③ 서울·경기 (C) : 인천·부천·안양·영등포·시흥 일원 대표 윤창세 (Tel. 43-0057)

④ 서울·경기 (D) ; 수원·안성·평택·이천 오산 일원 대표 양희주

⑤ 충남지구 ; 충남 일원 대표 이완식

⑥ 경북 (A) ; 대구 주위 경북 일원 대표 이정일

■ 축산협동조합

시흥축산협동조합은 이제까지의 배합사료 제

업계동향

조 및 판매의 저조를 탈피하고자 지난 3월 그 시설을 대폭 개선 증설하여 타 배합사료회사와의 경쟁에 대비하고 있으며 경상남도 하동축협이 금년 중에 발족하여 3월부터 옥수수 배정과 함께 본격 가동될 예정이며 춘천축협도 지금까지의 침체를 개선하고 3월부터 이 지방 양계업자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그런데 작년도 배합사료협회 산하 공장의 생산 실적이 300,000톤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농협 산하 각 축협의 생산량과 취급량은 이것보다 상회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축협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몇몇 축협을 제외하고는 생산 판매 체제가 개인업체와 비교하면 경쟁에 뒤지고 있어 단미사료의 취급에 그치지 않고 명실상부한 배합사료의 생산체제 확립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며 또 그 영향으로 위의 몇몇 축협이 계속 체질 개선을 하는 것으로 본다.

■ 동신 종축장

우리 나라의 유일한 종계 육종농장인 동신종축장은 새로 부로일러용 종계 응추(동신 부로-L♂)의 작출에 성공하여 금년부터 호평리에 판매되고 있다.

매년 귀중한 외화를 많이 소비하면서 외국 종계를 수입하는 국내 실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동신종축장의 이번 작출의 성공은 양계업계에 큰 희소식이라 하겠다.

■ 가칭 “전국생계업조합”창립 총회

지난 2월 22일 남산에 위치하고 있는 여성회관회의실에서 가칭 사단법인 전국생계업조합의 창립 총회가 있었다. 회원상호간의 친목 유대와 단결을 공고히 하며 생계업 경영의 원만한 발전을 도모하프로서 국내 축산업 발전과 국가경제 부흥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전국 생계업조합원은 약 3백명이 참석하였으며 조합원의 자격은 생계업·판매업을 경영하는 자와 생산업자로 구성된다고 하며 초대 조합장에는 진옥용씨

가 당선되었다. 그런데 동 조합은 현재 소속 부처에 단체 등록을 수속 중이라 한다.

■ 정부 달걀값 안정 위해 비축 방침

정부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많이 나올 달걀의 시세 하락을 막기 위해 3월 16일 달걀값 조절자금 1억 5천만원이 농업협동조합을 통해 방출되어 한개 10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1천5백만개를 사들여 비축하기로 했다. 지난 겨울동안 한줄에 140원을 넘던 달걀값은 요즘 출회 증가로 110~130원 선으로 떨어졌는데 봄철 산란기가 지나면 늦 여름부터 달걀값은 다시 뛰게 된다. 달걀값은 과거 연 평균 42.2%의 진폭을 보여 왔는데 농림부는 올해 진폭을 20%로 잡아 시중값이 소매 한줄 140원을 넘게 되면 비축했던 달걀을 내 놓기로 했다.

(1970년 3월 16일 동아일보에서)

★ 업계 인사 소식

- ◎천호부회장 : 이계조사장 웰프총회에 참석하고 3월 1일 귀국
이총련 학술부장 웰프농장에 혼련차 3월 10일 도미(1년 예정)
- ◎북부사료 : 이무성(서울농대 축산과)씨를 특채 영업부 담당
- ◎제일산업 : 이경산(생산과장)씨를 판매부장으로 승진 발령
- ◎장돈식 : 일본의 농업계를 시찰하고 지난 3. 1 일 귀국
- ◎영육농장 : 정보남(서울농업대 수의과 출신)씨를 특채 종계장 근무

■ 북부사료

지난 5년간 항상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 축산업 발전에 공헌하여 온 북부사료는 금번 또 신제품을 개발하였다. 즉 C. R. D치료제 안다신과 수용성 비타민제인 비타마인가용산, 종합첨자제인 주드라믹 및 소독제 에그크린을 시판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